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욕망하는가

What and How Do People  
Desire

## 1. 서론: Sign에서 de+sign으로, 그리고 de+sire로

나는 그동안 연구해온 것을 많은 이들과 함께 묻고 따져보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나 만들어보았다. “As the Master of Culture, Man has Designed all kinds of Desires with Signs” 이것을 한국말로 옮겨본다면 “문화의 주체로서 사람은 갖가지 기호를 가지고서, 온갖 종류의 욕망을 디자인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As the Master of Culture, Man has Designed all kinds of Desires with Signs”에서 말하는 “주체”와 “문화”와 “사람”과 “욕망”과 “기호” 따위를 묻고 따지는 일을 해왔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오늘날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을 좀 더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주체와 욕망』(2000), 『본과 보기 문화 이론』(2002)과 같은 책을 냈다.

“As the Master of Culture, Man has Designed all kinds of Desires with Signs”라는 말에는 사람이 문화의 주체로 서게 되는 바탕이 “Sign”과 “de+sign”과 “de+sire”에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Sign”과 “de+sign”과 “de+sire”는 세 가지 일이 하나로 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Sign 하는 일”을 가지고서 “de+sign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de+sign 하는 일”이 “de+sire 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s the Master of Culture, Man has Designed all kinds of Desires with Signs”가 말하는 바를 묻고 따지고 푸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사람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며,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몸통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며, 사람의 몸통에 자리하고 있는 팔과 다리, 코와 귀, 밥통과 허파, 머리와 마음 따위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하나의 주체로서 어떤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묻고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 2. 본론:

### 2.1. 사람과 몸통 살이(=代謝 活動 /Metabolism)

01. 사람은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와 마찬가지로 낱알의 목숨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임자이다. 이때 목숨은 목에 붙어 있는 숨으로서, 어떤 것이 갖고 있는 몫의 숨을 말한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몫의 숨이 다하는 것으로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02. 낱알의 목숨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임자 가운데서, 사람은 다른 것을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은 물, 불, 흙, 돌, 쇠, 버, 돼지와 같은 것이 가진 성질을 살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불을 피우고, 돌을 쌓고, 쇠를 부리고, 버를 기르고, 돼지를 키우는 일과 같은 것을 한다. 한국말에서 “사람”은 “살리다”에 뿌리를 둔 말로서, “살려서 살아가는 살림살이의 임자”를 뜻한다.

03. 사람이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임자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몸통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비롯한다. 사람은 몸통을 이루고 있는 갖가지 것들이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을때, 살아가는 임자가 될 수 있다.

04. 사람이 하나의 몸통으로서 살려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을 몸통 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몸통 살이가 이루어지면 “아직 살아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었다”라고 말한다.

05.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몸통 살이를 한자 낱말로로는 대사 활동(代謝 活動)이라 말하고, 영국말로로는 Metabolism이라 말한다. 사람은 몸통 살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저마다 갖가지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한다.

06. 사람의 몸통은 팔과 다리, 눈과 코, 허파와 밥통, 머리와 마음과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통째를 말한다. 낱알의 사람이 가진 몸을 통째로 일컬어서 몸통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하나의 몸통을 가짐으로써, 목숨을 가진 나름의 임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다.

07. 사람이 하나의 몸통을 갖는 것은 아버지 쪽의 씨와 어머니 쪽의 알이 모여서 하나의 참한 씨앗을 이루는 것에서 비롯한다. 아버지 쪽의 씨(=精子)와 어머니 쪽의 알(=卵子)이 모여서, 한 낱의 참한 씨앗을 이루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낱알의 몸통 살이가 일어나게 된다.

08.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몸통 살이는 물질과 물질이 함께 하는 일을 바탕으로 삼아서 절로 일어난다. 예컨대 사람들이 허파로 숨을 쉬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일이나, 심장이 뛰어서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일이나, 콩팥으로 오줌을 걸러내는 일과 같은 것은 모두 절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몸통 살이에 곧바로 끼어들 수가 없다. 사람들은 몸통 살이에서 비롯하는 것들을 머리와 마음으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통해 몸통 살이에 간접적으로 끼어들게 된다.

## 2.2. 사람과 느낌 살이(=感覺 活動 /Sensory Function)

01. 사람이 하나의 몸통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몸통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느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은 몸통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느낌을 좋은 것과 싫은 것으로 갈라서, 좋은 것은 갖거나 따르고, 싫은 것은 버리거나 떠나는 일을 함으로써 몸통 살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02. 사람은 몸통에서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과 괴로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떠한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해야 할 까닭이 사라진다. 사람은 몸통에서 갖가지로 느낌이 일어나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몸통 살이를 이어갈 수 있다.

03. 사람은 몸통에 있는 살, 눈, 귀, 혀, 코 따위에 기대어서, 어떤 것에서 비롯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깔, 거죽, 모양, 온도, 움직임, 달음 따위에 대한 느낌을 갖는다. 사람은 이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어떠한 것으로서 알아보는 일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갖가지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로 나아갈 수 있다.

04. 사람이 몸통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좋은 것과 싫은 것으로 갈라서, 좋은 것을 갖거나 따르고, 싫은 것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을 하는 것을 느낌 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 살이를 한자 낱말로 감각 활동(感覺 活動)이라고 말하고, 영국말로 Sensory Function 이라고 말한다.

05.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느낌 살이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몸통을 가진 다른 목숨에서도 다 같이 볼 수 있다. 예컨대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와 같은 것은 모두 저마다 느낌 살이를 통해 몸통 살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2.3. 사람과 느낌 알이 살이(=知覺 活動 /Sensation)

01. 사람들은 몸통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게 되면, 머리와 마음을 써서 어떤 느낌이 비롯하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알아보는 일을 하게 된다.

02. 사람들은 몸통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느낌 가운데서 어떤 것만 골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로 나아간다. 사람들은 느낌이 비롯하는 어떤 것을 어떠한 것으로서 알아보는 일을 하면,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알아내고, 알아주고, 알아하는 따위의 자료로 삼는다.

03. 사람들이 몸통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가지고서, 느낌이 비롯하는 어떤 것을 어떠한 것으로서 알아보는 것을 느낌 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느낌 알이를 한자 낱말로 지각(知覺)이라고 말하고, 영국말로 (Sensory) Perception 또는 Sensation 또는 Sense 라고 말한다.

04. 사람들이 느낌이 비롯하는 어떤 것을 어떠한 것으로서 느껴서 아는 일을 하려면, 어떤 것에서 비롯하는 낫앗(=感/Stimulus)을 받아들여서

어떤 늦이것(=感覺 刺戟/Sensory Stimulus)으로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노루에서 비롯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깔, 거죽, 달음, 온도, 운동과 같은 늦아트를 받아들여서, 늦이것(=感覺 刺戟/Sensory Stimulus)으로서 느끼는 일을 하게 되면, 노루를 “털빛이 노란 것”, “눈이 동그란 것”, “머리에 뿔이 달린 것”, “꼬리가 짧은 것”, “빨리 달리는 것” 따위로 알아보는 일을 하게 된다.

05. 사람들이 늦아트(=感/Stimulus)과 늦이것(=感覺 刺戟/Sensory Stimulus)을 바탕으로 삼아서, 느낌이 비롯하는 어떤 것을 어떠한 것으로서 알아보는 일은 다음과 같은 차례를 좇아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여러 가지 것에서 비롯하는 갖가지 늦아트(=感/Stimulus)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일어나게 한다.

둘째로, 사람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갖가지 늦아트 가운데서 어느 쪽의 늦아트를 어떤 늦이것(=感覺 刺戟/Sensory Stimulus)으로서 받아들인다.

셋째로, 사람은 어느 쪽의 늦아트를 어떤 늦이것으로서 받아들일게 되면,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얼이(=心象/Image)가 자리를 잡게 된다.

넷째로, 사람은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얼이(=心象/Image)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람으로 삼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알아보는 일을 한다.

다섯째로, 사람은 얼이(=心象/Image)가 무엇인지 살펴서 알아보게 되면, 늦이것이 비롯하는 어떤 것을 어떠한 것으로서 알아보게 된다.

06. 사람들은 느낌 알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부딪히는 온갖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마다 살아가는 일을 한다. 사람들이 느낌 알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온갖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것을 느낌 알이 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07.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느낌 알이 살이는 느낌 알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목숨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는 모두 느낌 알이를 바탕에 둔 느낌 알이 살이를 한다. 그런데 사람,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는 느끼고 아는 일에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느낌 알이 살이 또한 다른 것이 있다.

08. 사람,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처럼 느낌 알이 살이를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늦이것을 드러내어서, 다른 것들이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한다. 예컨대 참새의 경우에는 다른 것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냄새, 소리, 몸짓과 같은 늦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다른 것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

#### 2.4. 사람과 생각 알이 살이(=言語 活動 /Thinking)

01. 사람은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와 다르게 말을 가지고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사람은 말을 가지고서 생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짓거나, 옷을 만들거나, 콩을 기르거나, 꽃을 가꾸거나, 집을 꾸미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나라를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을 벌이는 문화의 주체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

02. 사람은 말로써 생각을 펼쳐서, 문화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까닭으로 “As the Master of Culture, Man has Designed all kinds of Desires with Signs”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이 문화의 주체로서 서는 것은 크게 세 개의 일, 곧 “Sign 하는 일”, “de+sign 하는 일”, “de+sire 하는 일”에 바탕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 늦이것(=感覺 刺戟/Sensory Stimulus)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입으로 내는 소리 늦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니름것(=記號/Sign)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니름것을 엮어서 펼치는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 쓰게 되면서, 생각의 세계를 열어가게 된다.

04.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소리 니름것(=記號/Sign)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니름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말로 닐러서(일러서), 어떤 것에 니르는(이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노루”라는 소리로 닐러서, “노루”라는 소리로 니르는 어떤 것에 사람들이 니르도록 할 수 있다. 한국말에서 니르다는 “사람이 어떤 것을 소리에 담아서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니름다”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 나아가서 닿게 되는 것”을 말한다.

05. 사람들이 소리 늦이것을 가지고, 소리 니름것을 만들어서, 말로써 생각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로, 사람들은 입으로 바람을 울려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둘째로, 사람들은 입으로 바람을 울려서 내는 소리를 크게 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셋째로, 사람들은 입으로 바람을 울려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빠르게 나아가 흩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서로 섞이는 일이 없이 차례로 가지런히 이어져 나갈 수 있다.

넷째로 사람들은 입으로 바람을 울려서, 내는 소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記號=Sign)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사람들은 소리 늦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든지 불러내어 마주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노루”라고 니를 수 있으면, 언제든지 “노루”를 불러내어서 마주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블랙홀”이라고 니를 수 있으면, 언제든지 “블랙홀”을 불러내어서 마주할 수 있다.

다섯째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리 니름것(기호=Sign)을 엮어서 펼치는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생각의 세계를 끝없이 열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 니름것을 이리저리 엮어서 펼치는 방식으로 갖가지 말을 만들어서, 생각의 세계를 끝없이 열어가는 것은 두 가지 소리 니름것을 만들어서, 하나로 어우르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사람들은 낱날의 소리 니름것을 말소리와 말뜻을 갈라서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먹이”라는 소리 니름것을 두고서, “먹이”라는 말소리(=겉보기/記標/ Signifier)와 “먹이”라는 말뜻 (=속들이/記意/ Signified)을 갈라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말소리와 말뜻을 갈라서 볼 수 있어야, “먹이”의 “먹”과 “먹다”의 “먹”과 “먹기”의 “먹”을 하나로 꿰어서 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낱낱의 소리 니름것을 말의 바탕을 나타내는 소리 니름것과 말을 구실을 나타내는 소리 니름것을 갈라서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말을 엮어낼 때, “나”와 “학교”와 “가-”와 같이 말이 비롯하는 바탕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바탕 니름것과 “-는”과 “-에”와 “-다”와 같이 말의 구실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는 구실 니름것을 갈라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바탕 니름것과 구실 니름것을 나누어볼 수 있어야, 두 가지 니름것을 하나로 엮어서 펼침으로써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일곱째로, 사람들은 말로써 생각의 세계를 열어서 살아가는 일을 하면, 말로써 생각하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

사람들은 말로써 생각의 세계를 열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낱낱으로 갈라서 보는 일에 익숙하게 된다. 예컨대 사람들이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는”, “학교”, “에”, “가”, “나”, “다”를 낱낱으로 갈라서 알아보는 일에 바탕을 둔다. 사람들은 낱으로 가른 어떤 것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바탕으로 삼아서 “나”, “학교”, “학교에 가는 나”, “학교로 가는 길” 따위를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을 펼치는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일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뜻을 좇아서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마주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에서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 따위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이 가진 특별한 뜻을 되새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거나, 고쳐서 그리거나, 바꾸어서 그리거나, 꾸며서 그리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생각으로 지어서 그리거나, 만들어서 그리거나, 꾸며서 그리려고 한다.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무엇을 놀려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사람들은 손이나 발이나 막대나 칼이나 붓이나 기계 따위를 놀려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벽이나 바닥이나 종이나 천이나 가죽이나 화면과 같은 것을 그림을 그리는 바탕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검정이나 먹이나 물감이나 돌멩이나 도자기나 불빛 따위를 써서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일을 한다.

여덟째로, 사람들은 어떤 소리 니름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 니름것으로서 쓸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그림글자 (=상형문자/Pictograph)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림글자를 만들어 쓰면, 소리로 된 말을 글자로 적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아홉째로, 사람들은 배우고 쓰기 어려운 그림 글자(=상형문자/Pictograph)를 배우고 쓰기 쉬운 소리 글자(=표음문자/Phonogram)로 바꾸면, 누구나 쉽게 글자를 배우고 쓸 수 있다.

중국사람이 글을 적는 데 쓰는 한자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가리키는 그림글자와 소리로써 가리키는 소리글자가 함께 있는 글자다. 예컨대 한자에서 水(수), 川(천), 火(화)와 같은 글자는 어떤 것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 글자와 비슷하고, 矣(의), 也(야), 凡(범)과 같은 글자는 어떤 것의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글자와 비슷하다. 한자는 그림글자에서 소리글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글자가 함께 하고 있다. 한자처럼 그림과 소리가 어설프게 뒤섞여 있는 글자를 표의문자(=表意文字/Ideogram)라 한다.

영국사람이 쓰는 알파벳이나 한국사람이 쓰는 한글은 말소리를 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 소리글자이다. 영국말에서 알파벳은 26개의 씨소리를 갖고 있고, 한국말에서 한글은 24개의 씨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씨소리를 엮어서 낱말의 말소리를 적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의 말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게 된다.

열째로, 오늘날 사람들은 입으로 말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몸짓으로 말소리를 대신하는 짓말(=手話/Sign Language)을 만들어 배우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손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점자(點字/Braille)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다.

## 2.5. 사람과 욕망하는 일

01. 사람,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와 같은 것은 어떤 것에서 비롯하는 느낌을 바탕으로 삼아서, 갖가지 느낌이(=感覺 刺戟/Sensory Stimulus)을 알아보는 일을 함으로써, 여러가지로 느낌 알이를 갖는다.

02. 사람,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와 같은 것이 느낌 알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어떤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욕구(欲求/Need)라고 부를 수 있다. 목숨을 가진 것 가운데서 느낌 알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알고,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느낌 알이 살이를 펼쳐나가게 된다.

03.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와 같은 것은 느낌 알이 살이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갖가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느낌 알이 살이에 머물러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갖가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사람은 느낌 알아 살이를 넘어서 생각 알이 살이로



나아가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나비, 돼지, 참새, 고래, 갈치, 문어 따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04.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記號/Sign/象徴/symbol)을 엮어서 펼쳐는 방식으로 온갖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생각 알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 알이를 바탕으로 갖가지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끝없이 펼쳐나간다.

05.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을 펼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욕망(慾望/Desir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람들은 느낌 알이 살이에 바탕을 둔 욕구를 말과 생각에 담아서 욕망으로 펼쳐내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어떤 말로써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욕망하는 것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

06. 사람이라도 말을 배우지 못한 아기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욕구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욕망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비나 돼지나 참치나 고래나 갈치나 문어의 경우에는 말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욕망하는 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욕구하는 일에 머무르게 된다.

07. 사람들은 말로써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욕망으로 담아낼 수 있다. 말과 생각의 가능성이 욕망의 가능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망하는 일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첫째로, 사람이 어떤 것을 말에 담아서 생각을 미루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앞서서 욕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나는 이 약을 먹고서, 병을 낫게 할 것이다.”라고 욕망할 수 있다.

둘째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에 담아서 생각을 미루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더한 것을 욕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와 “많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욕망을 할 수 있다.

셋째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에 담아서, 생각을 미루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끝없이 욕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나는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끝없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나는 끝없이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욕망할 수 있다.

넷째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에 담아서 생각을 미루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꾸며서 욕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나는 그 일을 그르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않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나는 그 일을 그르치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욕망할 수 있다.

다섯째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에 담아서 생각을 미루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지어서 욕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죽기 이전에 살아 있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죽기 이전에”를 “죽은 이후에”로 바꾸어서 “죽은 이후에 살아 있음”이라는 말을 지어서, “나는 죽은 이후에도

살아 있고 싶다”라고 욕망할 수 있다.

여섯째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에 담아서 생각을 미루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꾀하는 것을 욕망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계”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한 기계를 꾀해서 이루는 것”을 욕망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로써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욕망하는 것을 끝없이 펼쳐갈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욕망하는 일을 다스리지 못하면, 끝없이 뻗어 나가는 욕망에 휘둘리고 짓눌려서 제가 휘두르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과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욕망하는 일을 놓고서 끊임없이 시름하게 되는 까닭이다.

## 2.6. 사람과 금을 그어서 가르는 일

01.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은 사람이 어떤 것에 금을 그어서 이쪽과 저쪽을 갈라서, 이것과 저것이 따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02. 사람들은 어떤 것에 금을 그어서 이것과 저것을 따로 할 수 있게 되면, 이것과 저것을 자르거나, 나누거나, 붙이거나, 뭉치거나, 어우르거나, 아우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03. 사람들이 어떤 것에 금을 그어서 이것과 저것을 따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비롯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깔과 같은 늦에 금을 그어서 이쪽의 늦앗과 저쪽의 늦앗으로 가르는 일을 한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비롯하는 늦에 금을 그어서, 이쪽의 늦앗과 저쪽의 늦앗으로 가르는 일은 절로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두고서,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이 있다”, “감이 온다” 따위로 말한다.

둘째로 사람들은 이쪽의 늦앗과 저쪽의 늦앗을, 금으로 그어서 이쪽의 늦이것과 저쪽의 늦이것으로 가르는 일을 한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이쪽의 늦이것과 저쪽의 늦이것을 느끼고 아는 일의 바탕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이쪽의 늦이것과 저쪽의 늦이것을 가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어떤 것의 안과 밖을 가를 수 있고, 어떤 것의 겉과 속을 가를 수 있고, 어떤 것의 길이와 넓이와 부피 따위를 가를 수 있다.

셋째로, 사람들은 금을 그어서 갈라놓은 이쪽의 늦이것과 저쪽의 늦이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잡아서 어떤 것으로 알아보는 일을 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갖가지로 느낌 알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늦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으로 알아보는 일은 어떤 것의 둘레에 금을 그어서, 금의 안쪽에 자리한 어떤 것을 살펴보는 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어떤 것은 금의 안쪽에 자리한 것으로서, 나름의 겉과 속과 알을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말한다.

넷째로, 사람들은 느끼고 아는 일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알아보게

되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을 함께 만들어 씬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것을 소리로써 불러내어 함께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을 만들어서 쓰려면, 먼저 사람들이 소리 낯안에 금을 그어서 여러 가지 소리 낯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 낯이것을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으로서 함께 배우고 쓰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을 갖가지로 함께 만들고 쓰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로 깊숙이 들어서게 된다.

다섯째로,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에 금을 그어서 바탕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과 구실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으로 갈라놓고서, 그것을 엮어서 펼쳐는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생각의 세계를 열어나간다.

사람들이 소리 니름것으로써 말을 만들어서, 생각의 세계를 열어가려면, 사람들이 소리 니름것에 금을 그어서 바탕 니름것과 구실 니름것으로 갈라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들이 말로써 “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생각을 열어가려면, “나”, “학교”, “가”와 같은 바탕 니름 것과 “-는”, “-에”, “-다”와 같은 구실 니름것을 갈라서, 갖가지로 엮어서 펼쳐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바탕 니름것은 어떤 말이 있게 되는 기틀을 가리키고, 구실 니름것 은 어떤 말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쓰이는 노릇을 가리킨다. 학자들은 니름것 가운데서 바탕 니름것을 실질 형태소(Full Morpheme)라고 말하고, 구실 니름것을 형식 형태소(Empty Morpheme)라고 말한다.

### 3. 결론: 글을 끝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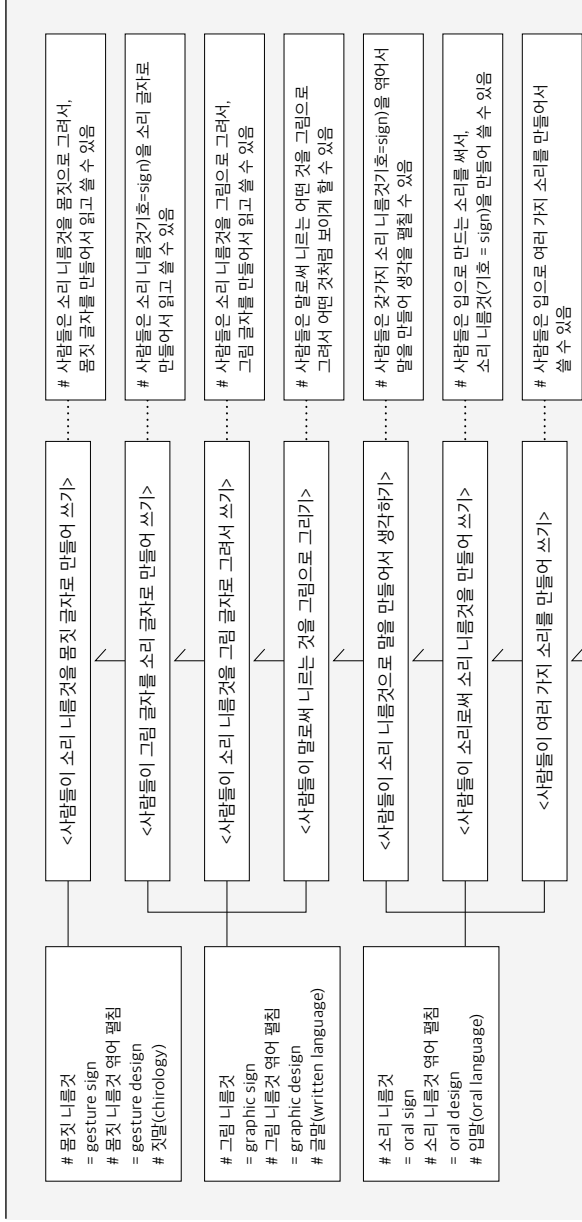
나는 사람들이 말로써 생각을 펼쳐서 벌여온 온갖 일들을 하나로 꿰어서 묻고 따지는 일을 해보려고, “As the Master of Culture, Man has Designed all kinds of Desires with Signs”를 화두로 걸어놓고서 몸통 살이(=代謝 活動/Metabolism), 느낌 살이(=代謝 活動/Metabolism), 느낌 알이 살이(=知覺 活動/Sensation), 생각 알이 살이(=언어 활동/Thinking), 낯(=感/Stimulus), 낯이것(=感覺 刺戟/Sensory Stimulus), 얼이(=心象/Image), 녀김것(=記號)/sign, 디자인(=de+sign/녀김것 엮어 펼침), 욕구(=欲求/need), 욕망(=慾望/de+sire)과 같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사람은 물론이고 중국사람, 일본사람, 미국사람, 영국사람, 프랑스사람, 독일사람, 이태리사람도 나, 사람, 몸, 마음, 머리, 말, 생각, 글, 그림, 디자인, 욕구, 욕망 따위를 알아보는 일에서 매우 어설플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노라면,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오늘날 사람들은 끝없이 부풀려진 욕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나, 사람,

몸, 마음, 머리, 말, 생각, 글, 그림, 디자인, 욕구, 욕망 따위를 깊고 넓게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학자들이 나와 우리의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내는 일을 바깥의 학자들에게 기대고자 애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내는 것은 나와 우리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㉞

# 사람들이 “늦이것=感覺/sense)”을 바탕으로 “니름것=기호/sign)”을 만들고 쓰는 일로 나아가서,  
 “니름것 엮어 펼침(=憲匠/de+sign)”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말, 그림, 글말, 짓말의 세계를 열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바탕



#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을 몸짓으로 그려서, 몸짓 글자를 만들어서 읽고 쓸 수 있음

#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기호=sign)을 소리 글자로 만들어서 읽고 쓸 수 있음

#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 글자를 만들어서 읽고 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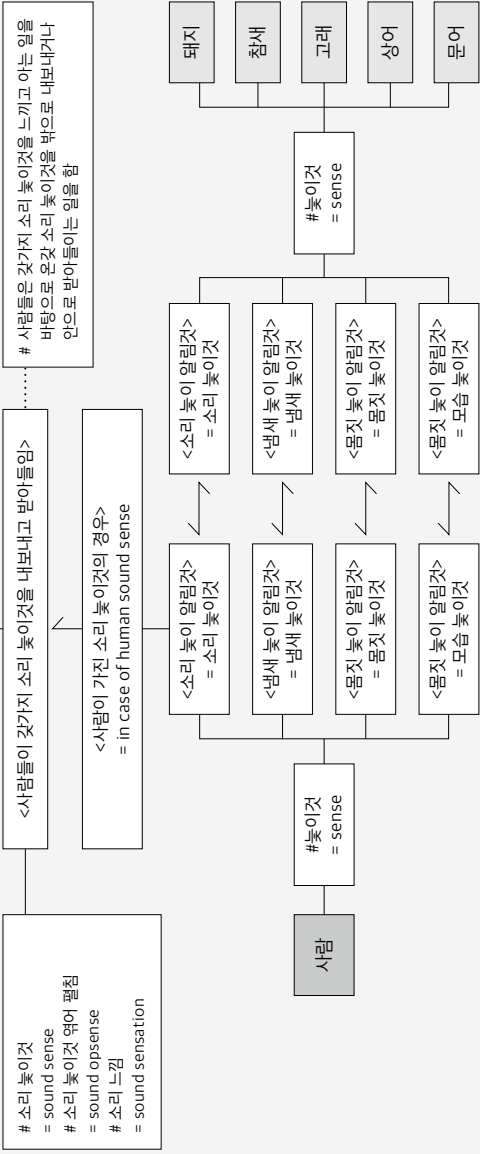
# 사람들은 말로써 니르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음

# 사람들은 갖가지 소리 니름것(기호=sign)을 엮어서 말을 만들어 생각을 펼칠 수 있음

# 사람들은 입으로 만드는 소리를 써서, 소리 니름것(기호 = sign)을 만들어 쓸 수 있음

# 사람들은 입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서 쓸 수 있음

사람이 sign을 바탕으로 de+sign을 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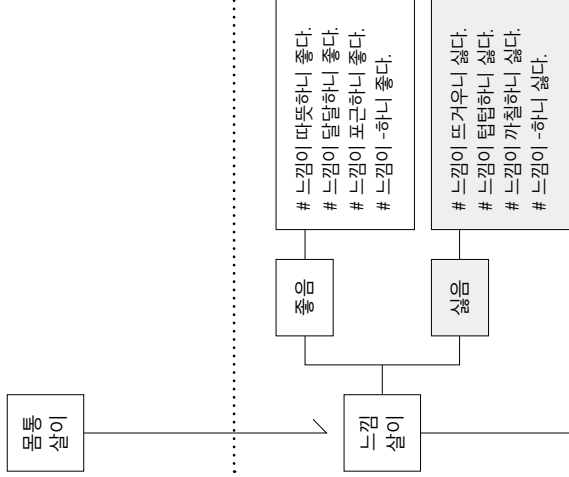
\* op+sense는 sense를 op(뛰어 차림)하는 것으로서, 지각 작용을 말함. 이에 대해서 de+sign은 sign을 de(뛰어 차림)하는 것으로서, 생각 작용을 말함. op+sense는 최봉영이 만들어 쓰는 말

사람이 sense를 바탕으로 op+sense\*를 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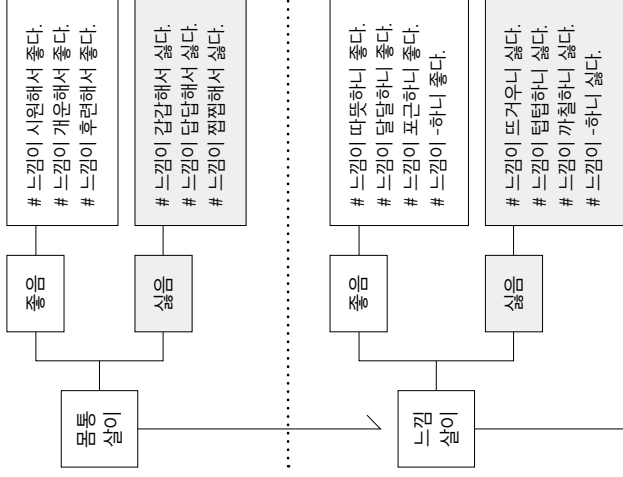
<사람들이 인으로 내는 소리로써, 니름것(記號=sign)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 쓰는 일의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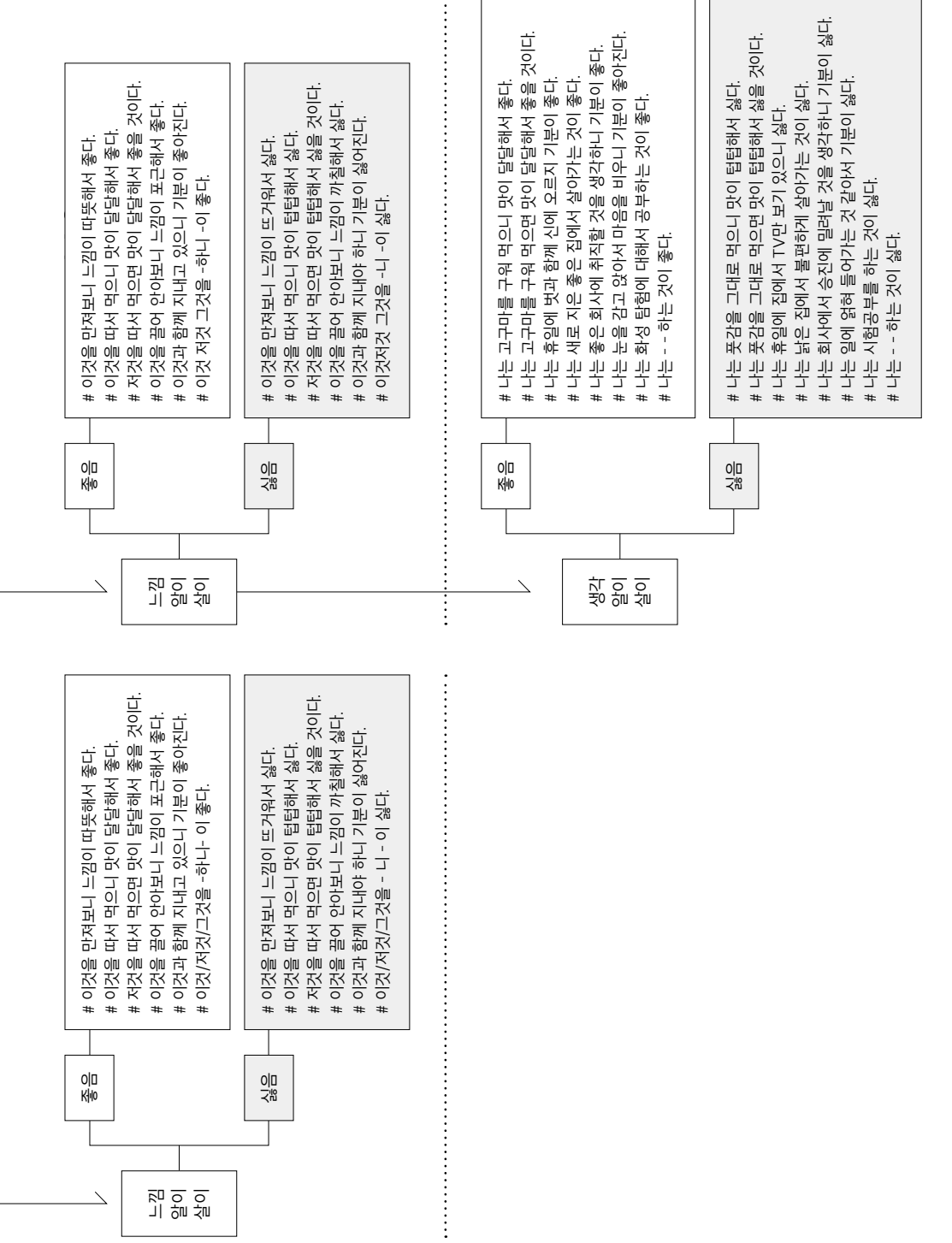
1. 사람과 더불어 뛰지, 참새, 고래, 상어, 문어 따위는 빛깔, 늦이, 소리, 늦이, 냄새 늦이, 맛깔, 늦이, 모양, 늦이, 움직임, 늦이를 느끼고 아는 일을 할 수 있다.
2. 사람과 더불어 뛰지, 참새, 고래, 상어, 문어 따위는 빛깔, 늦이, 소리, 늦이, 냄새 늦이, 맛깔, 늦이, 모양, 늦이, 움직임, 늦이에 바탕을 둔 소리, 늦이 알림(= 소리 늦이것), 냄새, 늦이 알림(= 냄새, 늦이것), 몸짓, 늦이 알림(= 몸짓, 늦이것), 모듬, 늦이 알림(=모듬, 늦이것)으로써, 저를 남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
3. 사람들은 로 갖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4. 사람들은 인으로 내는 소리를 크게 하면, 조금 멀리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다.
5. 사람들은 인으로 내는 소리가, 곧바로 사리지기 때문에 소리를 아서 내더라도 서로 섞이지 않고 차례로 이어질 수 있다.
6. 사람들은 내는 소리를 가지고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소리, 니름것(記號 = sign)을 만들 수 있다.
7.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호 = sign)을 얹어내는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갖가지로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다.
8.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으로써 갖가지로 생각을 펼쳐나가기 되면서, 말로써 니르고자 하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
9. 사람들은 소리, 니름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소리로 된 말을 글로써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10. 사람들은 배우고 쓰기 어려운 그림, 글자를 배우고 쓰기 쉬운 소리, 글자로 바꾸어서, 누구나 글자를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되었다.
11. 사람들은 말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몸짓으로써 말소리를 대신하는 것말(=手話)을 만들어서 배우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느낌 알이 살이에 머무르는 오랑우탄의 경우>



<생각 알이 살이로 나아가는 한국사람의 경우>





[표 2]